

현대국어 해라체 의문형 어미 ‘-느냐/으냐, -니’의 변화

유필재[†]

울산대학교

On the Interrogative Ending *-nunya/-unya* and *-ni* in Contemporary Korean

Pil-Jae Yoo[†]

University of Ulsan

ABSTRACT

There are various ways of ending the interrogative forms of contemporary Korean. In the plain style, there is the interrogative ending *-nunya*, with a verb stem and prefinal ending *-ess-* or *-keyss-*. With an adjective, *-(u)nya* is used. If the adjective ends in a vowel, *-nya* is attached, but if it ends in a consonant, *-unya* is attached. By removing *nu*, the ending *-nunya* is changed to *-nya*. This change is an ongoing process, and is not completed in the embedded sentence. In contrast, its loss in the final sentence almost completes the process. Furthermore, the suffix *-(u)nya*, always in the process of modification, changes to *-nya* in the final sentence when the adjective ends in a consonant. This process is an analogical leveling. The other interrogative ending *-ni* in the plain style also takes on the different form of *-(u)ni* when the adjective ends in a consonant. The alternation of ‘*-ni ~ -umi*’ is a result of the analogical extension ending ‘*-nya ~ -unya*’.

Keywords: contemporary Korean, interrogative form, ending *-nunya/unya*, ending *-ni ~ -umi*, analogy

1. 서 론

현대국어 해라체 의문형 어미에는 ‘-느냐/으냐’와 ‘-니~-으니’ 둘이 있는데¹⁾, 이 두 어미의 교체 양상은 매우 복잡하다. 우선 ‘-느냐/으냐’는 어간이 동사, ‘있-, 없-’일 경우는 ‘-느냐’가 결합되지만 어간이 형용사, 계사 ‘-이-’일 경우는 ‘-으냐’가 결합된다. 또 ‘-으냐’는 일반적인 매개모음어미처럼 ‘ㄱ’을 제외한 순수 자음 뒤에서는 ‘-으냐’, ‘ㄱ’과

* 이 논문은 2017학년도 울산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 Corresponding author: pjyoo@mail.ulsan.ac.kr

1) 설명의 편의상 조건 교체 관계에 있는 이형태는 빗금(/)으로, 수의적 교체 관계에 있는 이형태는 물결표 (~)로 제시하기로 한다.



모음 뒤에서는 ‘-냐’로 교체된다. 그러나 선행 語基가 선어말어미 ‘-었-, -겠-’으로 끝날 때는 어간의 품사와 관계없이 ‘-느냐’로 나타난다. 의문형 어미 ‘-니~-으니’는 일반적으로는 ‘-니’로 나타나지만 자음으로 끝난 형용사 어간 뒤에서는 ‘-으니’도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어간이 형용사일 때 자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서만 ‘-니’와 ‘-으니’가 공존형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복잡한 교체 양상을 가지는 ‘-느냐/으냐’는 현재 변화를 겪고 있다. 이형태를 ‘-냐’ 하나로 단일화 시키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유필재(2001: 144), 배주채(2003: 175), 이동석(2014)에서도 지적되어 있다. 특히 이동석(2014)에서는 21세기 세종계획 구어 말뭉치를 대상으로 하여 현대국어에서 ‘-느냐/으냐’가 ‘-냐’로 변화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 준 바 있다.2) 한편, ‘-니~-으니’의 교체 역시 최근에 일어난 변화의 결과이다. 이 때문인지 ‘-니~-으니’의 변화 양상이 정밀하게 기술된 연구를 찾기 어렵다.

본고에서는 ‘-느냐/으냐’를 출현 환경에 따라 분류하여 정밀하게 기술하고, 이를 통해 이 어미의 구체적인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 ‘-니~-으니’의 변화 과정을 검토하여 이 어미가 현재와 같은 교체 양상을 가지게 된 원인을 ‘-느냐/으냐’의 변화와 관련시켜 설명하고자 한다.

이 같은 목적을 위해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2장에서는 ‘-느냐/으냐’의 변화 양상을 검토한다. ‘-느냐/으냐’의 출현 환경을 내포문과 상위문의 서술어로 쓰인 경우, 둘로 나누어 구체적인 변화 양상을 자료를 통해 검토하려고 한다. 3장에서는 어미 ‘-니~-으니’가 애초에는 분포의 제약이 있는 어미였던 역사적 사실을 제시하고 ‘-니~-으니’ 교체가 생기게 된 원인을 ‘-느냐/으냐’의 변화와 관련시켜 설명한다. 4장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2. ‘-느냐/으냐’의 변화 양상

해라체 의문형 어미 ‘-느냐/으냐’의 교체는 어간의 품사, 어간 말음의 종류에 따라 복잡한 교체 양상을 보인다. 우선 어간이 동사, ‘있-, 없-’일 경우에는 ‘-느냐’가 결합되고 형용사, 계사 ‘-이-’일 경우에는 ‘-으냐’가 결합된다. ‘-으냐’의 ‘으’는 일반적인 매개 모음이므로 ‘ㄹ’과 모음 뒤에서는 탈락된다.

2) 본고에서도 2장에서 ‘-느냐/으냐’가 ‘-냐’로 변화하는 구체적인 양상을 다룬다. 또한 2장의 결론은 이동석(2014)와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느냐/으냐’의 변화와 관련된 자료 조사 결과의 수치 등은 가능한 한 이동석(2014)으로 미룬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냐’로의 변화의 양상을 상위문과 내포문으로 나누어 검토하였고, 각각의 경우에 ‘-느냐’가 출현하는 환경과 정도를 더 세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느냐/으냐’의 변화를 두 단계로 나누어 제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느냐/으냐 > -냐’의 변화를 해라체 의문형 어미 ‘-니’의 변화와 연관 지어 설명하였다. 자료 역시 이동석(2014)과는 다른 예를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 (1) a. 먹느냐?, 사느냐?(← 살-), 가느냐?
- b. 있느냐?, 없느냐?
- c. 작으냐?, 머냐?(← 멀-), 크냐?
- d. 책이냐?, 차냐?

그런데 어간에 관계없이 선어말어미 ‘-었-, -겠-’ 뒤에서는 ‘-느냐’가 나타난다. ‘-었-, -겠-’이 기원적으로 ‘있-’가 포함된 형태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었-’만으로 예를 들어 보인다.

- (2) a. 먹었느냐?, 살았느냐?, 갔느냐?
- b. 있었느냐?, 없었느냐?
- c. 작았느냐?, 멀었느냐?, 컸느냐?
- d. 책이었느냐?, 차였느냐?

2.1. 1단계 변화

그런데 ‘-느냐’는 ‘느’가 탈락한 ‘-냐/으냐’로 변화하고 있다.³⁾ 이를 1단계 변화라고 해 둔다. (1’, 2’)은 각각 (1, 2)에서 ‘느’가 탈락한 활용형의 예를 보인 것이다.

- (1’) a. 먹냐?, 사냐?(← 살-), 가냐?
- b. 있냐?, 없냐?
- c. 작으냐?, 머냐?(← 멀-), 크냐?
- d. 책이냐?, 차냐?

- (2’) a. 먹었냐?, 살았냐?, 갔냐?
- b. 있었냐?, 없었냐?

3) ‘느’ 탈락은 ‘-느냐/으냐’ 이외에도 현대국어에서 ‘느’를 가진 많은 어미들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연결어미 ‘-느니 ~ -느니/으니 ~ 으니’에서도 ‘-느냐/으냐’와 같은 변화가 보인다. (a)가 규범형이고 (b)는 공통어의 현실 발음이다.

- a. 먹느니 마느니, 가느니 마느니
 있느니 없느니
 작으니 크니, 머니 가까우니
 소설이니 아니니
- b. 먹니 마니, 가니 마니
 있니 없니
 작으니 크니, 머니 가깝니
 소설이니 아니니

- c. 작았냐?, 멀었냐?, 컸냐?
- d. 책이었냐?, 차였냐?

‘-느냐/으냐’에서 ‘-냐/으냐’로의 변화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현재 해당 어미의 두 가지 형태는 공존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두 형태의 공존 양상은 상위문과 내포문에서 차이가 있다. 상위문에서는 ‘-느냐/으냐 > -냐/으냐’의 변화가 완성되었지만 내포문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다.

우선 상위문에서는 ‘느’ 탈락으로 인해 ‘-느냐’ 형태가 거의 소멸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이전 시기에 ‘-느냐’가 분포할 환경에서 ‘-냐’가 나타난다. (3)의 ‘찾냐, 아냐, 가냐, 있냐, 없냐, 받았냐, 되겠냐’는 동사 어간, ‘있-, 없-, -었-, -겠-’ 뒤에서 ‘느’가 탈락한 형태이다.

(3) a. (동네 아저씨 종철이 동네 아이 준희에게) 뭐 찾냐?

〈최성실, MBC 육남매 9회, 1998〉

- b. (정문구가 태우에게) 임마, 누구한테 피 같은 돈이 아니라 물 같은 돈인 줄 아냐?

〈김지수, 영웅신화 18회, 1998〉

- c. (봉희가 기풍에게) 넌 안 가냐? 〈임성한, MBC 보고 또 보고 46회, 1998〉

- d. (애인 사이. 남자가 여자에게) 더 할 얘기 있냐?

〈김지수, 영웅신화 11회, 1998〉

- e. (누나가 남동생에게) 너 요즘 교장선생님하구 언제, 또 혼난 거 없냐?

〈임성한, MBC 보고 또 보고 46회, 1998〉

- f. (남자 형사가 취조받는 소년에게) 형사처벌 몇 번 받았냐

〈임성한, MBC 보고 또 보고 8회, 1998〉

- g. (성인인 남자 친구 사이) 너 같으면 그런 사람 돈으로 얻은 사무실에서 일이 되겠냐?

〈김지수, 영웅신화 18회, 1998〉

상위문의 서술어에서 ‘-느냐’가 쓰이는 경우는 대체로 다음의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 첫째는 사극 등에서 옛말투를 나타내고자 할 경우이다. 이런 예들은 작가가 역사극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일부러 쓴 것이므로 진정한 현대국어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4)의 ‘들어왔느냐’는 역사극에서 나타난 ‘-느냐’의 예이다.

(4) 흥목 : 아씨!

효임 : 누구냐!

흥목 : 소인 흥목이라 합니다. 도편수 어른을 따라온 ……

효임 : 허면 네 무리와 함께 있을 게지. 여긴 어찌 들어왔느냐.

〈이한호, MBC 베스트극장 300화 전등사, 1998〉

두 번째는 이동석(2014: 273)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한 질문에서 이 의문형 어미가 나타나는 경우이다. 이 경우의 의문문은 청자에게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청자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수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의문문이다. (5, 6)에서 진행자는 ‘했느냐, 하느냐’같은 수사적인 의문문을 써서 청취자의 주의를 모으고 있다. 이런 경우에 ‘-느냐’가 많이 나타난다.

(5) A : 그런데 결혼을 했대요. 누구랑 결혼을 했느냐. 변함없이 날 영원히 사랑해 줄 존재를 이제야 찾았어요 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게 뭐냐.

B : 뭐예요?

A : 자기 집하고 결혼을 했어요.

〈배한성, 배연정, 교통방송 출발 서울대행진, 1996년 5월 26일〉

(6) 저희가 이제 말씀 나왔으니까 드리는 건데요. 그 백 쌍을 뽑습니다. 그런데 지금 십이일이면 시간이 있는데 왜 이십 이일 마감을 하느냐. 어 작년 같은 경우도 보니까 우리가 일단 그 천 통이고 이천 통의 편지가 오면은 다 전화를 해 봅니다.

〈김승현, 손숙, MBC 라디오 여성시대, 1996년 5월 20일〉

이상의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상위문에서는 ‘-느냐’가 분포할 환경에서 대체로 ‘-냐’가 쓰인다. 이로 인해 이 어미의 이형태는 자음으로 끝나는 형용사 어간 뒤를 제외하면 모두 ‘-냐’로만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상위문에서와 달리 내포문에서는 아직도 해당 환경에서 ‘-느냐’가 꽤 많이 사용되고 있다. ‘-느냐/으냐’가 내포문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느냐고/으냐고, -느냐면/으냐면, -느냐는/으냐는, -느냐면서/으냐면서, -느냐며/으냐며’처럼 간접화법에서 인용절로 사용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느냐가/으냐가, -느냐를/으냐를, -느냐에/으냐에, -느냐의/으냐의’처럼 조사가 결합되는 명사절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이 두 경우에는 해당 환경에서 ‘-냐’뿐 아니라 ‘-느냐’가 자주 나타난다.⁴⁾

코퍼스들⁵⁾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내포문에서 ‘-느냐’가 많이 사용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느냐는’의 경우를 보면 해당 조건, 다시 말해서 동사 어간, ‘있-, 없-, -었-, -겠-’ 뒤에서 ‘-느냐는’은 모두 94개의 용례가, ‘-냐는’은 11개의 용례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느냐는’이 ‘-냐는’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⁶⁾ (7)의 ‘해결하느냐는, (잠겨) 있느냐는, (밀돌지) 않겠느냐는’은 해당 환경에서 나타난 ‘-느냐는’의 예이고, (8)의 ‘가능하겠느냐는’은 ‘-냐는’의 예이다.

4) 이러한 사실은 이동석(2014: 273)에서도 지적되어 있다.

5) 내포문에서의 ‘-느냐’의 양상은 세종 현대국어 균형말뭉치 중 구어(spoken) 말뭉치(100만 어절)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6) 한편 ‘-느냐고’처럼 ‘-느냐고(44개의 용례)’와 ‘-냐고(57개의 용례)’의 빈도가 비슷한 경우도 있다.

- (7) a. 또 신경계 연결에 성공해도 이식수술의 가장 큰 부작용인 면역학적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과제가 남습니다.

〈김경중 기자, MBC 뉴스데스크, 1998년 4월 28일〉

- b. 이복형 대사 : 다들 야단인데 왜 중남미만 정적 속에 잠겨 있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재춘 외, 동아일보 90년 좌담 기사, 1990년 3월 8일〉

- c. “투표율도 50%를 밑돌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본래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 보면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진규 대검 공안 2과장 부장검사, 동아일보, 1991년 3월 20일〉

- (8) 내수침체와 수출부족에서 부실을 안은 채 정상화가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강합니다.

〈MBN 산업/재계 뉴스, 1998년 9월 14일〉

명사절로 쓰인 경우도 ‘-느냐’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명사절을 이루는 ‘-느냐’와 ‘-느냐에’가 각각 33개의 용례, 39개의 용례가 나타났다. 그러나 ‘느’가 탈락된 ‘-냐’는 해당 환경에서 용례가 없었고⁷⁾ ‘-냐에’ 역시 단 한 예만이 나타났다.⁸⁾

이상의 검토 결과를 보면 상위문과 달리 내포문에서는 ‘-느냐/으냐 > -냐/으냐’의 변화가 아직도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다. ‘-느냐’에 결합되는 어미, 조사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상위문에 비해 내포문에서 더 보수적인 양상을 띄고 있다.

2.2. 2단계 변화

앞 절에서 ‘느’ 탈락에 의해 해라체 의문형 어미 ‘-느냐/으냐’가 ‘-냐/으냐’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변화의 정도는 내포문과 상위문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 변화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냐/으냐’가 된 이 어미는 다시 이형태 ‘-으냐’를 없애고 ‘-냐’로 단일화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를 2단계 변화라고 하고 이하에서 그 구체적인 양상을 검토한다.

일단 ‘-느냐/으냐’로부터 변화된 ‘-냐/으냐’가 다시 변화를 겪고 있는 이유는 ‘-냐/으냐’의 교체가 일반적인 매개모음어미와 달리 불규칙적인 양상을 보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⁹⁾ 매개모음어미는 음운론적 교체 양상을 보이는 데 비해 ‘-냐/으냐’는 형태론적 교체 양상을 보여 준다. 설명의 편의상 ‘느’가 탈락한 형태로 앞에서 제시한 (1')의 예

7) 조사 대상을 세종 현대국어 균형말뭉치 전체(1000만 어절)로 해도 ‘-냐’의 용례는 ‘있냐’뿐이다.

8) 해당 예문은 다음과 같다.

그 립스틱을 발라 솔로 발랐을 때 그 모양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또 성격이 나타난대요. 〈김승현, 손숙, MBC 라디오 여성시대, 1996년 3월 7일〉

9) 이 때문에 일반적인 매개모음어미처럼 ‘-으냐’로 표기하지 않고 ‘-냐/으냐’로 하였다.

요구하는 대로 돈을 고분고분 내놓을 것 같으나? 어렵었다. 어렵었어!

〈김용운, 욕망의 성, 문예출판사, 1990〉

(12) a. (고모가 조카에게) 내가 무슨 돈이 많냐. 너 한 번 나 줘 봐, 조카가 줘 보는 돈 좀 써보자. 〈임성한, MBC 보고 또 보고 3회, 1998〉

b. (부처가 제자들에게) 내 손에 있는 나뭇잎과 저 숲 속에 있는 나뭇잎 중 어느 것이 더 많으나? 〈정용선, 한국의 사상, 한샘, 1994〉

‘싫-’처럼 ‘-냐’가 결합된 예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발음상의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13) (선생님이 초등학생에게) 산수가 싫으나? 국어가 싫으나?

산수요. 〈이오덕, 이오덕의 교육일기 1, 한길사, 1989〉

결국 의문형 어미 ‘-느냐/으나’는 현재 ‘-냐~-으나’로 변화하고 있고 이 변화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냐’로의 단일화로 향해 변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생각된다.¹²⁾

3. 의문형 어미 ‘-냐~-으나’ 교체의 성립

2장에서 현대국어 해라체 의문형 어미 ‘-느냐/으나’가 ‘-느냐/으나 > -냐/으나 > -냐~-으나’의 변화 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보았다. 1단계 변화 ‘-느냐/으나 > -냐/으나’는 상위문에서는 거의 완성되었지만 내포문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2단계 변화 ‘-냐/으나 > -냐~-으나’ 역시 현재 변화의 과정 중에 있다. ‘-으나’는 자음으로 끝나는 형용사 어간 뒤에서만 나타나므로 결국 ‘-냐’와 ‘-으나’는 현재 자음으로 끝나는 형용사 어간 뒤에서 공존하고 있다. 현재 상위문에서 서술어로 쓰인 ‘-냐~-으나’는 (14)와 같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작냐, 작으나’에서 보듯이 자음으로 끝나는 형용사 어간 뒤에서만 ‘-냐, -으나’로 나타나고 나머지 환경에서는 ‘-냐’로만 나타난다.

(14) a. 먹냐?, 사냐?(← 살-), 가냐?

b. 있냐?, 없냐?

c. 작냐?~작으나?, 머냐?(← 멀-), 크냐?

d. 책이냐?, 차냐?

12) 이동석(2014)에서는 ‘ㄹ’을 제외한 자음으로 끝나는 형용사 어간 뒤에서 ‘-으나’가 나타나는 비율은 2.4%(265쪽), ‘있다, 없다, 계시다’, 동사 어간, 선어말 어미 ‘-으시-, -었-, -겠-’ 뒤에서 ‘-느냐’가 나타나는 비율은 25%(272쪽)라고 보고하고 있다.

그런데 ‘-냐~-으냐’와 동일한 교체 양상을 보이는 어미가 현대국어에 하나 더 있다. 같은 상대경어법 등급인 해라체 의문형 어미 ‘-니’가 그것이다. 그런데 두 어미가 같은 교체 양상을 보이는 것은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하에서 이에 대해 검토해 본다.

해라체 의문형 어미 ‘-니’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형태가 ‘-니’ 하나뿐이다.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이다.

- (15) a. 먹니?, 사니?(← 살-), 가니?
- b. 작니?, 머니?(← 멀-), 크니?

그런데 의문형 어미 ‘-니’는 어간이 형용사인 경우 자음 뒤에서 ‘-으니’가 오는 경우도 있다. (16)의 ‘좋으니?, 싫으니?, 같으니?, 싫으니?’가 그 예이다.

- (16) a. (후배에게) 어쩔 좋으니? 난 이런 데서 못 살겠다.
 〈조연경, 멀리 있는 후배 K에게, 월간 에세이 8월호, 1994〉
- b. (친구에게) 고국에 와서 장님처럼 해매게 하고 싫으니? 안 돼, 그건 안 돼
 〈송하춘, 하백의 딸들, 문학과학지성사, 1994〉
- c. (여자아이가 동생들에게) 교복치마 같으니? 교복치마 아닌 것 같니?
 〈최성실, MBC 육남매 6회, 1998〉
- d. 엄마가 정말 똥똥하고, 이렇게 보기 싫으니? 그랬더니, 아니 다른 엄마들은
 다 숫 다린데 ... 〈30대 여자 출연자, KBS 아침마당, 1995년 2월 20일〉

(16 c)의 ‘같으니?, 같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미 ‘-니’와 ‘-으니’는 자음으로 끝나는 형용사 어간 뒤에서는 두 형태가 모두 나타난다. ‘좋으니?, 싫으니?’ 역시 (17)에서 보듯이 ‘좋니?, 싫니?’의 예가 있다.¹³⁾

- (17) a. 바보 같은 기집애 ... 김태우가 그렇게도 좋니? 그렇게도 좋아?
 〈김지수, MBC 영웅신화 11회, 1998〉
- b. 너도 그런 삶을 살고 싫니? 학교는 졸업해야겠지?
 〈유시춘, 닫힌 교문을 열며, 사계절, 1990〉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해라체 의문형 어미 ‘-니’는 기본적으로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이지만 어간이 형용사인 경우 자음 뒤에서 어미 ‘-으니’로 교체되는 경우도 있다고 기술할 수 있다.¹⁴⁾ (16 c), (17)에서 보듯이 동일한 조건(자음으로 끝나는 형용사 어간)

13) 그러나 ‘싫냐’와 마찬가지로 ‘싫니?’ 역시 본고가 대상으로 한 자료에서는 찾기 어려웠다.
14) 세종 현대국어 균형말뭉치 전체만으로 대상을 한정한다면 어간이 자음으로 끝난 형용사 뒤에서 의문형 어미 ‘-으니’가 나타나는 어간은 본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좋-, 싫-, 같-, 싫-’이다. 그러나 대상 자료를 현재 사용되는 구어로 넓히면 ‘-으니’가 나타나는 어간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에서 ‘-니’ 역시 가능하므로 ‘-니’와 ‘-으니’는 자음으로 끝나는 형용사 어간 뒤에서 공존하는 셈이다.¹⁵⁾

이처럼 복잡한 현재의 ‘-니’의 교체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대국어에서 일어난 의문형 어미 ‘-니’의 변화를 알아야 한다. ‘-니’는 20세기초에는 형용사나 ‘-이-’ 뒤에서 나타나지 않던 어미였다. 20세기초 ‘-니’는 ‘-느냐’와 마찬가지로 어간이 동사, ‘있-, 없-’일 경우와 선행 語基가 선어말어미 ‘-었-, -겠-’으로 끝날 경우에 나타나는 어미였다. ‘-니’가 동사, ‘있-, 없-, -었-, -겠-’ 뒤에서만 분포하고, 형용사, ‘-이-’ 뒤에서는 오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3.1. 20세기초 ‘-니(-니)’의 분포와 변화

의문형 어미 ‘-니’는 20세기 초반 자료들에서 본격적으로 확인된다. ‘-니’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다. 이하에서 20세기 초반 당시 ‘-니(-니)’의 양상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18) (점순) 마님, 쇠네 · 도동 갖다, 왔습니다

(부인) 오- 어서 이악이 쯤, 하여라 덕체 그 년의 인물락지가, 엇더하더냐

(점순) 인물은 엇지 그리 어엿썬지오 사름도 · 밋우 얹전히요 성품도 · 덕단이
순한 모냥입디다

(부인) 요 · 비라먹을 년, 쥬져넘기도 분수가 잇지, 네가, 춘천집의 얼굴은 보았스
니, 알려니와, 잠근 · 보고, 성품이 엇더흔지 엇지, 그럭 · 자세 아니¹⁶⁾

〈이인직, 鬼의聲 上:89〉(1906)

(19) 어미 아버 말 듯지 안는 · 거시 즈식이랄 것 무엇 잇ኒ 너가 덩 이러케 고집ከ면
두 늙으니가 네 압혀서 칼이라도 물고 먼더 죽겟다¹⁷⁾

〈이해조, 고목화 28〉(1907)

15) 2017년 6월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 나타난 표준어 규정 역시 이상의 교체 조건과 같다.

-니¹⁰

「어미」

(‘-이다’의 어간이나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해라할 자리에 쓰여, 물음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냐’에 비하여 좀 더 친밀하고 부드럽게 이르는 느낌을 준다.

-으니⁰⁴

「어미」

(‘-르’를 제외한 받침 있는 형용사 어간 뒤에 붙어)

해라할 자리에 쓰여, 물음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느냐’에 비하여 좀 더 친밀하고 부드럽게 이르는 느낌을 준다.

16) 띄어쓰기는 필자가 하였다. 이하에서 제시하는 신소설 자료 모두 마찬가지이다.

17) 화자는 어머니, 청자는 장성한 딸이다.

(20) 이익 · 점순아 이 방에 아무도 업니

(점순) ……

(부인) 그 원수의 년을, 엇더케 하면, 좃탄 말이나

〈이인직, 鬼의聲 上:98〉(1906)

(21) (마) 갑동아 너의 · 딕이 우리보다 얼마나 크냐

(갑) 딕보다 클 것은 업셔도 스량이 더 잇지요

(마) 식구논 · 누구 々々 계시냐

(갑) 홀노 계신 · 딕방마님 혼 분 진스님 혼 분 네 살 먹은 아기와 어미 아비
두 식구 며까지 녀섯인디 · 지금은 단 네 식구가 계시겟습니다

(마) 진사님 아바님 돌아가섯니

(갑동) 진스님이 두 살 째의 선령감은 도라가섯다고 ㅎ셔오

(마) 그러면 진스님 아씨논 · 엇직 · 안이 계시냐

〈이해조, 고목화 41〉(1907)

(22) (평) 그러면 엇더케 히스면 도킷니 무얼 제가 · 져짜져 죽은 걸 늬게 지다위힐가
좁 쥐여 박혔다고 죽어서야 종 부러먹을 사름이 업게 늬버려 두렴

〈이해조, 빈상설 21〉(1908)

(18-22)는 모두 신소설에 나타난 ‘-니’의 예들이다. (18)은 어간이 동사 ‘알-’인 예이고, (19, 20)은 각각 어간이 ‘잇-, 없-’인 경우이다. (21, 22)의 ‘돌아가섯니, 도킷니’는 ‘-니’가 선어말어미 ‘-엇-, -깃(켓)-’ 뒤에 나타난 경우이다.

한편 이 때도 어간이 형용사나 ‘-이-’인 경우에는 ‘-으냐’가 나타난다. 같은 예문 (20)의 ‘말이나’, (21)의 ‘크냐’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같은 화자가 말하는 경우에도 ‘-이-’, 형용사 뒤에서는 ‘-으냐’를 사용하는 것이다. 자음으로 끝나는 형용사 어간의 예로 (23)의 ‘올으냐’를 들어 둔다.

(23) (박) 이익 · 인스논 · 천々히 ㅎ고 급히 물어볼 일이 잇다 이익 · 너의 · 딕 진스님
이 어딕 · 계시냐 정도로 피접 갓단 말이 올으냐

〈이해조, 고목화 119〉(1907)

‘-으냐’의 이형태인 ‘-느냐(-나냐)’의 분포는 20세기 초에도 동사 어간, ‘잇-, 없-, -엇-, -겠-’ 뒤이다. 그러므로 이 당시 ‘-느냐(-나냐)’와 ‘-니(-니)’는 분포 조건이 같다. 현재로써는 두 어미의 의미 차이를 분명히 말할 수 없다.¹⁸⁾ (19’)는 예문 (19)를, 앞 부

18) 한글학회 《큰사전》(1947: 689)에서 ‘-니’를 ‘-느냐’의 준말로 기술한 사실이 참고가 된다.

분을 조금 더 포함하여 가져 온 것이다.

(19') 암만 울기로 죽은 스름이 살아오나냐 쌍을 열 길을 파도 쓸 디가 업다 예그
울지 마라 고만 그처라 글세 왜 이리나냐
네가 변히구나 어미 말도 아니 들으니 어미 아비말 듯지 안는거시 즈식이랄
것 무엇 잇니 네가 덩 이러케 고집흐면 두 늙으니까 네 압혀서 칼이라도 물고
먼더 죽겠다

〈이해조, 고목화 27-28〉(1907)

(19')의 ‘살아오나냐, 이리나냐’와 ‘잇니’에서 보듯이 ‘-느냐(-나냐)’와 ‘-니(-니)’가 공존하고 있다.

이상의 기술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세기 초 의문형 어미 ‘-느냐, -으냐’의 교체 양상은 현재와 거의 같지만 ‘-니(-니)’의 교체 양상은 현재와 다르다. 즉 ‘-느냐(-나냐)’는 동사 어간, ‘있-, 없-, -었-, -겠-’ 뒤에서, ‘-으냐’는 형용사, ‘-이-’ 뒤에서 나타난다. 한편 현재의 의문형 어미 ‘-니’에 소급되는 ‘-니’는 ‘-느냐’가 분포하는 환경에서만 나타는데 이 점은 현재와 다르다. 현재의 ‘-니’는 형용사, ‘-이-’ 뒤에서도 나타난다. 20세기 초에 비해 현재의 ‘-니’는 그 분포가 더 넓어진 것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현재의 해라체 의문형 어미 ‘-니’는 애초에는 이형태가 ‘-니’ 하나뿐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형태가 ‘-니’ 하나만이던 시기에 이 어미는 ‘-느냐’와 마찬가지로 동사 어간 등의 환경에서만 나타나는 어미였다. 형용사 어간과 ‘-이-’ 뒤로 ‘-니’의 분포가 넓어진 것은 이후의 일이다. ‘으’를 가진 이형태 ‘-으니’는 자음으로 끝나는 형용사 어간 뒤에 나타나므로 ‘-으니’ 역시 이 과정에서 생긴 것이다.

‘-니(-니)’의 분포가 형용사 뒤로 확대된 것은 선어말어미 ‘-겠(-겠-)’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된다. 어간이 형용사라 하더라도 ‘-겠(-겠-)’ 뒤에서는 ‘-니(-니)’가 나타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¹⁹⁾

(24) (김씨 부인이 하인들에게) 이년들 희가 지거든 좀 들어올 것이지 꼭 부르기를
기다린단 말이나 에이 요 발촉흐게 싱긴 년들 그리 네 상전 명식은 죽든지 말든
지 이년 너의들만 살앗스면 돛켓니 네 이년들 얼마나 잘든 사는가 엇의 좀 보즈
〈이인직, 치약산 하:6〉(1908)

(25) 「도」 우리집 큰일이라는 것이 ㅅ것이 다 집안에 오턴 물건을 식며나리가 업
신 것이 큰일이 아니냐 제 말맛다나 세간 속에 깊히 감추어 두엇스면 고만이
어니와 만일 그것을 업식 버렸스면 너 엇지홀 터이나 계집 승만 감추랴고 어

19) 20세기 초기 신소설 자료에서 형용사 어간 뒤에 ‘-엇니’의 예는 찾기 어렵다. 이 때까지도 형용사의 과거 시제는 ‘-터-’에 의해 표시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24, 25)의 ‘돛켓니, 올킷니’는 각각 ‘돛+켓+니, 올+킷+니’로 분석된다. 이러한 활용 형에 기초하여 형용사 ‘중-(동-), 올’ 뒤에서 ‘-겠(-겟-)’ 없이 ‘-니(-니)’가 결합된 활용형도 가능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로써 ‘-니’의 분포가 형용사, 계사 뒤로 확대된 사실 자체는 설명된다. 현재로서는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으나 ‘-니(-니)’는 이후 형용사와 계사 뒤로 그 영역을 점차 확대해 간 것으로 추측된다.²⁰⁾ 이러한 분포 확대의 과정에 대해서는 절을 달리하여 검토하려 한다.

3.2. ‘-니’ 변화의 과정

앞 절에서 의문형 어미 ‘-니’가 20세기 초기에는 동사 어간, ‘있-, 없-, -었-, -겠-’ 뒤에서만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어미였으며, 현재의 ‘-니’의 분포로 보아 그 후에 형용사와 ‘-이-’ 뒤로 분포를 확대해 온 것으로 추정하였다.

의문형 어미 ‘-니’의 분포가 역사적으로 변화해 온 과정을 이렇게 상세하게 검토한 이유는 이 문제가 현재 자음으로 끝나는 형용사 어간 뒤에서 ‘-으니’가 출현하게 된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자음으로 끝나는 형용사 어간 뒤 의문형 어미 ‘-으니’의 생성은 또 다른 해라체 의문형 어미 ‘-느냐/으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현대국어에서 해라체 의문형 어미는 ‘-느냐/으냐’와 ‘-니~-으니’가 있는데 이 둘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표 1. 현대국어 의문형 어미(실제형)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	해요체	해체
의문형	-습니까/ㅂ니까	-소/오, -으오, -으우	는가/은가 ~ 나	-느냐/으냐(내포문), -냐~ -으냐(상위문), -니 ~ -으니	-아/어요	-아/어

‘-니~-으니’는 상위문에서만 사용되고 내포문에서 사용될 때는 ‘-느냐/으냐’로 바뀐다. 간접화법에서 인용절로 사용될 때, 의문문이 그대로 명사절로 사용될 때²¹⁾ ‘-니’

20) 산발적이기는 하지만 ‘-이-’ 뒤에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니’가 결합된 예가 보인다.

조 덕강이 일곱직 · 셋는 조년 나히 몇 술이니 설흔 한술이올시다 〈남원고사 3:9b〉

늦돌아 떠계 웬일이니 〈구의산〉(1912)

21) 단, 이 때 의문 어미는 ‘-느냐/으냐’ 외에 ‘-는가/은가, -는지/은지, -을까’ 등에 한정된다(이익섭, 이상억, 채완 1997: 214).

대신 ‘-느냐/으냐’를 사용하게 된다. (26)에서 보듯이 ‘늦었니?’가 내포문에서 사용될 때는 ‘늦었느냐고’처럼 ‘-느냐/으냐’ 어미를 취한 형태가 된다.

(26) a. 왜 이렇게 늦었니?

b. 인사차 왜 늦었느냐고 물었는데 아무 말이 없었다.

〈장기표의 나의 꿈, 나의 도전, 한국일보 2010년 1월 10일〉

(27) 사실 광복 이후 신극 공연에 유료 관객이 1만명 이상 든 적이 없었습니다. 그 벽을 누가, 언제 깨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지요.

〈실험극장 대표 김동훈, 조선일보 인터뷰 기사, 1993년 2월 22일〉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된 두 어미의 양상은 20세기 초에는 표 2와 같았다.

표 2. 20세기 초 해라체 의문형 어미의 양상

	-느냐/으냐	-니(-니)
동사	먹느냐	먹니
	가느냐	가니
	사느냐	사니
있-	있느냐	있니
없-	없느냐	없니
-었-	먹었느냐	먹었니
-겠-	먹겠느냐	먹겠니, 좋겠니
형용사	작으냐	
	크냐	
	머냐	
-이-	말이냐	
	차냐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의문형 어미 ‘-니(-니)’는 동사 어간, ‘있-, 없-’, 선어말어미 ‘-었-, -겠-’ 뒤에서만 나타났다. 어간이 형용사나 ‘-이-’인 경우에는 해당되는 어미가 발견되지 않는다. 표 2에서 이 부분이 공란이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후에 형용사와 ‘-이-’ 어간 뒤에서도 ‘-니(-니)’가 결합하게 되면서 이 공란(패러다임의 빈 자리)이 채워지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사이의 의문형 어미 ‘-느냐/으냐’ 역시 변화하게 된다.

표 3. 의문형 어미 ‘-느냐/으냐’의 변화 양상

		-느냐/으냐		-니(-니)	
T1		T2		T3	T①
먹느냐		먹냐		먹냐	먹니
가느냐		가냐		가냐	가니
사느냐		사냐		사냐	사니
있느냐		있냐		있냐	있니
없느냐		없냐		없냐	없니
먹었느냐	⇒ ‘느’ 탈락	먹었냐	⇒ ‘냐’로 단일화	먹었냐	먹었니
먹겠느냐		먹겠냐		먹겠냐	먹겠니
작으냐		작으냐		작으냐~작냐	
크냐		크냐		크냐	
머냐		머냐		머냐	
말이냐		말이냐		말이냐	
차냐		차냐		차냐	

표 3은 2장에서 제시한 어미 ‘-느냐/으냐’의 변화를 시간 순서에 따라 도식화한 것이다. T1에서 T2 사이의 변화가 제1단계 변화인 ‘-느냐/으냐 > -냐/으냐’의 변화이고(‘느’ 탈락) T2에서 T3 사이의 변화가 제2단계 변화인 ‘-냐/으냐 > -냐~으냐’ 변화에 해당한다(단일화).

의문형 어미 ‘-니(-니)’는 이 중 ‘-느냐/으냐’의 최종 변화 단계인 T3을 모델로 삼아 분포의 영역을 확장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설명의 편의상 표 2에서 최종 변화 단계인 T3에 초점을 맞추어 그 변화 양상을 도식화해 보면 표 4와 같다.

표 4. 의문형 어미 ‘-니~-으니’의 변화 양상

-느냐/으냐		-니(-니)	
T3		T②	T①
먹냐		먹니	먹니
가냐		가니	가니
사냐		사니	사니
있냐		있니	있니
없냐		없니	없니
먹었냐		먹었니	먹었니
먹겠냐		먹겠니	먹겠니
작으냐~작냐		작으니~작니	
크냐		크니	⇐ 패러다임 빈칸 채우기
머냐	⇨ 유추	머니	
말이냐		말이니	
차냐		차니	

이 변화는 현재도 진행 중이므로 이에 대한 설명은 가설에 가깝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의문형 어미 ‘-니~-으니’의 교체는 어미 ‘-느냐/으냐’의 改新形 ‘-냐~-으냐’에서 유추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 둘은 의문형으로서는 같은 등급에 속하는 유일한 어미일 뿐 아니라 내포문에서는 그 구분이 없어지기까지 하는 것이다.

표 4에서 보는 것처럼 20세기 초에 해라체 의문형 어미는 ‘-느냐/으냐’와 ‘-니(-니)’가 있었다. 그런데 이 당시 ‘-니(-니)’의 분포는 한정되어 있었다. T①에서 보는 것처럼 ‘-니(-니)’는 동사 어간, ‘있-, 없-, -었-, -겠-’ 뒤에서만 나타났다. 형용사나 ‘-이-’ 뒤에서는 ‘-니(-니)’가 없었다. ‘-니(-니)’는 그 후에 형용사와 ‘-이-’ 어간 뒤로 분포를 넓혀 간 것이다.

형용사와 ‘-이-’ 어간 뒤로 분포를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니’는 ‘-으냐’의 교체 양상을 닮아가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니(-니)’의 분포 환경이 ‘-느냐’와 완전히 같았으므로 나머지 활용형은 ‘-느냐’의 이형태인 ‘-으냐’를 모델로 삼은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생각된다.

한편, 변화의 모델이 된 ‘-으냐’는 고정된 상태가 아니었다. ‘-으냐’ 또한 ‘-냐’로 변하고 있었던 것이다. ‘-니’가 유추의 과정에서 ‘-으냐 > -냐’의 변화 양상마저 따라가게 된 것이 현재 ‘-니~-으니’의 상황 T②로 생각된다.²²⁾

4. 결 론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고 본고에서 다룬 어미 ‘-느냐/으냐, -니~-으니’가 제기하는 이론적 문제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현대국어 해라체 의문형 어미에는 ‘-느냐/으냐’와 ‘-니~-으니’ 둘이 있는데, 이 두 어미의 교체 양상은 매우 복잡하다. 우선 ‘-느냐/으냐’는 어간이 동사, ‘있-, 없-’일 경우는 ‘-느냐’가 결합되지만 어간이 형용사, ‘-이-’일 경우는 ‘-으냐’가 결합된다. 또 ‘-으냐’는 일반적인 매개모음어미처럼 ‘ㄹ’을 제외한 순수 자음 뒤에서는 ‘-으냐’, ‘ㄹ’과 모음 뒤에서는 ‘-냐’로 교체된다. 그러나 선행 어기가 선어말어미 ‘-었-, -겠-’으로 끝날 때는 어간의 품사와 관계없이 ‘-느냐’로 나타난다. ‘-니~-으니’는 일반적으로는 ‘-니’로 나타나지만 자음으로 끝나는 형용사 어간 뒤에서는 ‘-으니’도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자음으로 끝나는 형용사 어간 뒤에서만 ‘-니’와 ‘-으니’가 공존형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느냐/으냐’는 ‘느’ 탈락에 의해 ‘-냐/으냐’로 변화 중인데 내포문에서는 아직 변화가 진행 중이며 상위문에서는 변화가 거의 완성되었다. ‘-냐/으냐’는 다시 이형태가 ‘-냐’로 단일화 되면서 ‘-냐/으냐 > -냐~-으냐’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다. 또다른 해라체

22) ‘-느냐/으냐’와 ‘-니~-으니’의 의미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는 시점 역시 ‘-니~-으니’가 형용사, ‘-이-’ 뒤에서 나타나 패러다임이 완성된 뒤가 아닌가 한다. 현재로부터 멀지 않은 시기인 것이다.

의문형 어미 ‘-니’는 20세기 초기에는 동사 어간, ‘있-, 없-, -었-, -겠-’ 뒤에서만 나타나는 어미였다. ‘-니’가 형용사와 ‘-이-’ 뒤로 분포를 넓히는 과정에서 자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서의 ‘-으니’가 생겨났는데 ‘-니~-으니’의 이러한 교체 양상은 같은 해라체 의문형 어미의 개신형 ‘-냐~-으냐’의 교체에서 유추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본고에서 다룬 어미 ‘-니~-으니’의 교체는 일반적인 매개모음어미의 그것과는 다르다. 형태가 비슷한 연결어미 ‘-으니’의 교체와 비교하면 이를 쉽게 알 수 있다. (28)은 의문형 종결어미 ‘-니~-으니’, (29)는 연결어미 ‘-으니’의 예이다.

- (28) a. 먹니?, 사니?(← 살-), 가니?
 b. 좋니?~좋으니?, 머니?(← 멀-), 크니?
- (29) a. 먹으니, 사니(← 살-), 가니
 b. 좋으니, 머니(← 멀-), 크니

연결어미 ‘-으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반적인 매개모음어미에서 ‘으’의 존재 여부는 순수히 음운 조건에 따른 것이다. 어간 말음이 모음, ‘ㄹ’일 경우에는 ‘으’가 없는 이 형태를 가진다. 그러나 의문형 어미 ‘-니~-으니’의 교체 조건은 그렇지 않다. 형용사 뒤라는 형태 조건에 따른 것이다.²³⁾ ‘-느냐/으냐’의 개신형인 ‘-냐/으냐’와 ‘-냐~-으냐’에서도²⁴⁾ ‘으’는 매개모음이라고 볼 수 있지만 ‘-냐/으냐, -냐~-으냐’의 교체 양상 역시 일반적인 매개모음어미의 그것과는 다르다.

그런데 형태는 매개모음어미이면서 교체의 양상이 특이한 것은 ‘-니~-으니, -냐~-으냐’만이 아니다. 연결어미 ‘-으되’ 역시 교체의 양상이 일반적인 매개모음어미와 다르다. 연결어미 ‘-되’는 ‘ㅍ’ 뒤에서만²⁵⁾ ‘-으되’로 나타난다. 종결어미 ‘-으우’의 교체 양상 역시 일반적인 매개모음어미와 다르다. ‘-으우’는 자음 ‘ㅍ’ 뒤에서 ‘-으우’가 아닌 ‘-우’로 나타나는 점이 다른 매개모음어미와 다르다.

위에서 제시한 의문형 어미 ‘-니~-으니, -냐~-으냐’, 종결어미 ‘-으우’, 연결어미 ‘-되’는 매개모음이 있는 이 형태를 가진다는 점에서 매개모음어미 부류에 넣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교체 양상은 일반적인 매개모음어미들과는 다르다. 매개모음어미 중에서도 불규칙적인 교체를 보이는 부류가 존재하는 것이다. 용언 어간에 대해서는 늘 불규칙 용언이 언급되고 있지만 어미의 교체에도 비슷한 양상이 존재한다는 점을 이 어미들은 말해 주고 있다.

23) 이와 유사한 예로 해체 종결형 어미 ‘-네’를 들 수 있다. 이 어미 역시 공통어의 현실발음에서는 ‘ 좋으네’처럼 자음으로 끝나는 형용사 어간 뒤에서는 ‘-으네’로 교체되기도 한다.
 24) ‘-냐/으냐’는 ‘-느냐/으냐’의 제1단계 변화 뒤의, ‘-냐~-으냐’는 제2단계 변화 뒤의 어미 상태이다.
 25) 2017년 6월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의 기술에 의하면 ‘-으되’는 ‘있다’, ‘없다’의 어간이나 어미 ‘-었-’, ‘-겠-’ 뒤에 붙어 나타난다. 이 조건은 ‘ㅍ’ 다음이라고 간단히 기술할 수 있다.

References

- 배주채. (2003). 『한국어의 발음(개정판)』, 서울: 삼경문화사.
- 신승용. (1999). “ ‘-으X~-X’계 어미의 基底構造”, 『國語學』, 34, 3-30.
- 유필재. (2001). 『서울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 이동석. (2014). “ ‘-나’계 어미의 결합 분포에 대하여 - 구어 말뭉치 분석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64, 247-281.
- 李昭欣. (2015). “開化期國語 終結語尾와 {-느-}의 結合 樣相”, 『語文研究』, 43(3), 45-72.
- 이승희. (2007). 『국어 청자높임법의 역사적 변화』, 서울: 태학사.
- 이익섭, 이상억, 채 완. (1997). 『한국의 언어』, 서울: 신구문화사.
- 이익섭, 채 완. (1999). 『국어문법론강의』, 서울: 學研社.
- 李賢熙. (1982a). 『國語의 疑問法에 대한 通時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 李賢熙. (1982b). “國語 終結語尾 發達에 대한 管見”, 『國語學』, 11, 143-163.
- 장윤희. (2012). “국어 종결어미의 통시적 변화와 쟁점”, 『국어사 연구』, 14, 63-99.
- Hock, Henrich, H. (2003). Analogical change, in Brian D. Joseph and Richard D. Janda ed., *The Handbook of Historical Linguistics*, 441-460. Blackwell Publishing,

유필재

44610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93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부

전자우편 : pjyoo@mail.ulsan.ac.kr

접수일자 : 2017. 9. 30

수정본 접수 : 2018. 2. 1

게재결정 : 2018. 2. 4